

새 천년을 향하는 대학교육, 그리고 『대학교육』의 역할



김민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새로운 천년이 다가오고 있다.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나타날 지를 예측하기란 심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부존자원이나 영토 등 환경적 요인에서 취약한 우리나라가 새로운 밀레니엄 동안 경쟁력을 갖고 생존해 나가려면 교육에 대한 투자나 지원이 남달라야 한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천년은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구성원의 자질과 창의력, 성향 등에 따라 성락(盛落)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의 보고서는 우리 나라와 우리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보고서는 우리 나라 대학교육이 국가경쟁력 향상에 미친 공헌도가 전세계 주요 47개국 중 최하위라고 발표했다. 국가경쟁력도 38위로 추락했고, 우리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자랑해왔던 인적자원 경쟁력도 하락해서 47개국 중 31위로 밀려났다고 한다. 이 결과로만 본다면 대학교육의 일각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대학이 이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 것에 대해 당혹감을 떨칠 수가 없다. 조사의 공정성을 따지기 전에 대학교육에 대한 개선과 변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앞선다.

그 동안 대학은 입시문제에 천착하고, 그로 인해서 매겨진 서열에 어느 정도 만족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잠자고 있는 대학들을 힘있는 대학,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 대학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대학교육 개선방안 중 우선 시급한 것은 교육투자의 증대이다. 대학에 대한 투자가 부실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수 1인당 학생수가 지난해에는 26.3명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중에 가장 많은 형편이다. 각 대학마다 1백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강의실 한 두 개 없는 곳이 없다. 그나마 마이크 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 학생들이 강의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달리 IMD 보고서가 교육제정 부문을 바닥수준으로 평가했겠는가? 정부도 이런 형편을 아는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7년 동안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1백88개의 4년제 대학을 포함한 3백50여 개의 고등교육기관에서 2백60만 명이 고등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지는 두고 볼 일이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대학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학발전 기금만해도 5조 원이 넘는 학교가 27개나 되

니 이에 견줄 바가 안 되기 때문이다. 보다 근원적이고 획기적인 교육재정투자와 교육여건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고, 재정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효과 극대화 방안도 필요하다.

대학 특성화 문제도 그 동안 많이 거론되었지만 이제 는 대학들이 보다 진지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시기이다. 그 동안 대학들은 선진 외국대학들처럼 특정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고자 노력하기 보다는 '종합대학'을 목표로 활로를 개척해 왔다는 것이 일반의 지적이다. 열악한 교육환경하에서, 그것도 천편일률적인 학과와 교과과정으로 세계 일류대학으로 향하기란 어렵다.

그나마 최근 몇 년 간 각 대학들이 구조개선 등의 작업을 시행해 왔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분야를 특화하는 본질적인 개혁을 추구했다기 보다는 학부제 도입 같은 다소는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개혁에만 치중했다는 느낌이 적지 않다. 이러한 잣대에서의 개혁은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할 수 없다. 대학 스스로가 새 분야를 개발하고 차별화하는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대학이 강해지려면 교수와 학생들이 강해져야 한다. 국내 최고라는 서울대도 세계 1백위권 밖으로 평가되고 있고, 교수 1인당 논문편수나 저술편수도 세계수준에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동료출신 교수채용문제도 학연에 얽매어 토론문화나 창의성 신장 등에 좋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수업방식 문제도 '사이버 수업' 등과 같은 다양한 변화를 모색해야 하며, 계속해서 대학노릇한 권에만 의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들도 대학만 들어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더 이상 쫓겨 있어서는 안 된다. 외국 대학생들은 대학 4년을 우리나라 고3 학생처럼 공부하고 있다. 외국의 일부 대학에서는 '예습량을 줄여달라'고 데모도 하고, 수업부담 때문에 학생들이 '스트레스 상담'을 받으려고 줄을 서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지니도록 배우고,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 대학교육의 변모가 가능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학교육의 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날카로운 비평과 지적의 선두에 서야 할 언론이나 매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학문의 사조, 새로운 커리큘럼의 도입 등 대학교육상의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 언론이나 매체들이 그러한 영역까지 담당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런 면에서 대학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매체의 발전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대학발전과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1983년 창간된 이래, 발빠른 정보와 정확한 사실 전달,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대학교육의 이론과 실재를 전달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온 『대학교육』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학교육에 큰 힘을 보태왔던 것이 사실이다.

100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학의 모습과 우수논문, 새로운 사조, 대학사회의 여론과 비판정신을 담은 『대학교육』지에는 더욱 큰 역할이 기다리고 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발행부수를 늘려 많은 대학인들과 그 종사자들에게 변화하는 대학사회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우수한 논문의 소개와 외국 선진대학의 발전방향이나 모델들도 제시해 한국 대학들의 변화노력을 자극하며, 다른 쪽에서는 대학의 지성과 학문에 담긴 인간에를 담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학교육』지가 이번 100호 발간이 새로운 촉매제가 되어서 더욱 충실하게 발전하여 우리 대학의 변화를 선도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학교육이 표류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방향키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주길 기대해 본다. **김민하**

김민하

중앙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중앙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중앙대 교수로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과 중앙대 민족발전연구원장, 이태평화재단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으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정치사상사』, 『현대사회와 이데올로기』, 『이상과 결단』, 『현대 정치학의 제문제』 등이 있고, 한국 정치, 통일 문제, 교육발전 등에 관련된 논문이 다수 있다.